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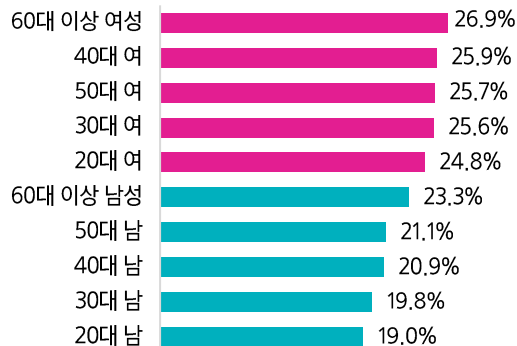
매매가 잦을수록 오히려 계좌 수익률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

Vol 05 | 2026년 4월 첫번째 주

1 “2025년*, 연령대별·성별 수익률 순위는?”

*기간: 2025년 1월~9월

성별·연령대별 국내 주식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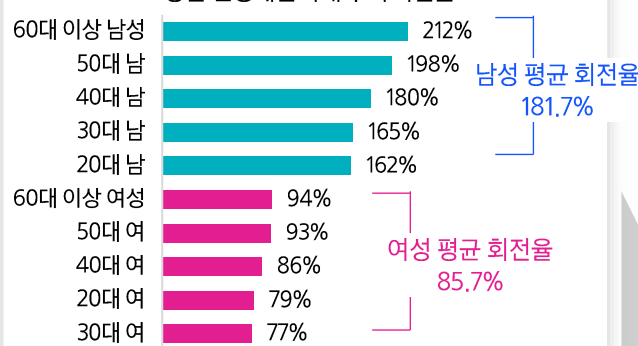
*자료: NH투자증권 데이터센터, 조선일보(2025.10.28)

*기간: 2025.01~2025.09

지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내는 투자자는 누구였을까요?
빠른 정보력과 트렌드에 민감한 20대일 것 같지만,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.
NH투자증권이 활성 계좌 224만 개를 분석한 결과, **평균 수익률 1위는 60대 이상의 여성**이었습니다. (26.9%). 반면,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**최하위 그룹은 20대 남성**(19.0%)였습니다.

2 “여성 평균 회전을 < 남성 평균 회전율”

성별·연령대별 국내 주식 회전율*



*자료: NH투자증권 데이터센터, 조선일보(2025.10.28)

*기간: 2025.01~2025.09

승패를 가른 핵심 지표는 바로 **‘회전율*’**입니다.
여성의 평균 회전율이 85.7% 인 반면, 남성의 평균 회전율이 181.4%였습니다.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단기 차익을 추구하면서 심 없이 시장과 싸웠다는 의미입니다.
결과적으로, **잦은 매매는 비용을 발생 시키고 수익률을 갉아먹는 효과**를 보일 수 있습니다.

* 회전율: (약정 금액(매수+매도))/(하루 평균X2)X100.
회전율이 클 수록 매수 매도 거래가 빈번하다는 의미

3 “우량한 자산에 투자하고 놔두세요”



우량 종목	투자 종목	레버리지, 인버스
길게	보유 기간	짧게
적음	매매 횟수	많음

‘그랜마 버핏’(할머니를 뜻하는 Grandmother와 워렌 버핏의 합성어)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 **우량종목에 투자**하고, 단기적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② **한번 투자한 종목을 꾸준히 들고 있던 것**입니다.

마찬가지로 **ETF를 활용하여 우량한 자산에 꾸준히 분할·적립식 투자**한다면,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기 보다 장기 성장의 과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.

추천
PICK!

한국 증시의 구조적 성장에 참여하는

Kodex 200 ETF

(069500)

①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대표지수 ETF

②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큰 순자산 규모를 형성*하고 있는 ETF

* 2026년 3월 30일 기준, 한국거래소 *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* 기준일 2026년 3월 30일,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기준일 순자산(NAV): 16조 8,219억원

* 합성총보수: 연 0.1615% (운용 0.124%, AP 0.001%, 신탁 0.010%, 사무 0.015%, 기타비용 0.0115%)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283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
* 합성총보수·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투수 Letter

ETF컨설팅본부 ETF투자솔루션팀

시장의 흐름을 읽어주는 Market Issue Comment

Vol 05 | 2026년 4월 첫번째 주

불확실성이 커진 증시, 머니마켓액티브 ETF로 대응

• 미국-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: 전쟁이 장기화 될 수록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평소보다 악재와 호재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한 장세 흐름 지속

• 변동성이 큰 구간, 대기자금 운용 수단 활용: 초단기 채권 등에 투자하여 금리 수준에 따른 이자를 기대하는 **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** 활용하여 대기자금 운용 가능

• 중동발 리스크 피난처로 '안정추구형' ETF로 자금 유입: ETF Check 기준, 3월 20일~3월 27일까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에 4,135억원이 순유입*되며 같은 기간 전체 ETF 가운데 순유입액 2위 기록

* 자료 : ETF Check, SBS Biz(2026.03.28), 순유입: 순설정환매금액 *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자금 유입(순위)
기간: 2026년 3월20일~26일



KODEX 머니마켓액티브

*자료:조선일보(2026.03.28),
금융투자협회, ETF Check

FOCUS ①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(498400)

- 국채, 양도성예금증서(CD), 기업어음(CP) 등 유동성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
- 목표 듀레이션을 0.1~0.3년 내외로 추구하며, 가입금액 제한, 기간 조건이 없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초단기자금 관리에 활용 가능

* 합성총보수 : 연 0.063% (운용 0.039%, AP 0.001%, 신탁 0.005%, 사무 0.005%, 기타비용 0.013%)
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013% 발생, 위험등급: 5등급 (낮은 위험)
* 기준일 2026년 3월 31일

* 합성총보수 · 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*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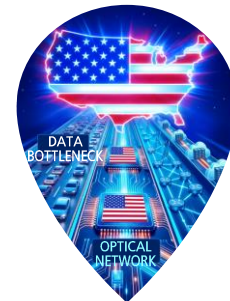
AI 산업의 흐름 : 반도체, 전력 다음은? 광통신

• 네트워크 병목, AI 발전의 핵심과제: GPU 성능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나,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. 데이터센터 간 '연결 속도' 병목 현상을 해결할 '**종합적인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**'가 그 **핵심 축**으로 부상

• 네트워크 병목 해결의 축으로 떠오르는 광통신 기술: 전기 신호 대신 '빛'을 활용하는 광학 기술의 급부상. GPU와 광학 부품의 통합 패키징을 통해 **데이터 처리 속도는 향상되고 전력 효율은 개선될** 것으로 기대

• AI 데이터센터 내 광학 기술의 도입 증가로 광통신 기업 수혜 기대: 대표적인 광학 기술 기업인 Lumentum의 경우, **광학 솔루션 도입 이후 Cloud & Networking 사업부 매출이 연평균 34% 증가***할 것으로 기대

* 삼성자산운용, Bloomberg, 2026년 1월 기준. *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신규 상장 (3월 31일)

FOCUS ②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ETF(0173Y0)

- GPU 성능의 급격한 향상에도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물리적 한계에 직면 하였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병목을 해결할 '광통신 기술' 기업에 주목
- 루멘텀, 코히런트, 시에나 등 미국 광통신 대표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

*구성종목 및 비중 추후 변동 가능

* 총보수 : 연 0.550% (운용 0.529%, AP 0.001%, 신탁 0.010%, 사무 0.010%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)
* 향후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기준일 2026년 3월 31일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자료는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